

축 사

박 영 숙(녹색서울시민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민에 의해 선출되신 조순 시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국내외의 환경전문가, 귀빈 그리고 시민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환경친화적인 도시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환경세미나에서/서울시민의 한사람이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특별히 의미가 크다고 여겨져서 의미 깊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이 지방자치시대 바로 시민자치시대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선자치시대 출범이래 서울시는/서울시의 환경행정을 시민과 함께 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그리고 시민의 시정참여의 통로로서 그리고 시행정의 파트너로서 녹색서울시민 위원회를 구성하고/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도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하기에 따라서는 성과도 기대할 만한 정책 전환이라고 생각하고 위원회의 위원들도 자기의 몫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 백에 부딪히기로 하고 힘써주시길

이 세미나는 지난 '95년 10월에 가졌던 「인간적인 도시 서울을 향하여」라는 주제 하에/안전, 교통, 환경, 복지 등의 바른시정기획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이어 개최되는 국제환경세미나로서/자연과 조화된 도시개발, 환경친화적 도시정책의 실행, 그리고 녹색도시 만들기에 시민의 참여문제를/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어 있어서/삶의 질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시민의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환경의 세기인 21세기가 바라는 도시인/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략 회의가/96년도 세계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열리게 된 것은 시의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세미나의 의의를 더해 주고 있는 사실은/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세미나를 가지고 있는 바로 지금/지구의 다른 한편인 이스탄불에서는/세계의 모든 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전략을 위해 20세기의 마지막 유엔회의인/제2차 정주권회의(HABITAT II), 일명 “도시정상회의”로 불리는 대규모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이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 의회, 민간단체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이 자리에 꼭 함께 해야 할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 회의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이 도시화 문제를/지구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2000년대에 이르면 세계인구의 50%이상이 도시에서 살게 되며/나머지 50%의 인구도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생계유지에 있어 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화 현상은 인구의 집중, 환경파괴, 사회적 혼란, 실업률 상승, 그리고 주택문제를 포함한 시민의 생활여건을 열악하게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회의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첫째, 도시화 문제를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발전계획의 우선과제로 부각시키고, 둘째, 도시관리 문제와 주택개발의 새로운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고, 셋째 도시의 환경문제의 해결과, 넷째 도시의 기반시설과 봉사기능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도시정상회의에서는 또한 세계의 도시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고 형평성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들이 되게 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민주주의, 인권, 시민참여, 환경과 사회의 보전, 행정의 분권화, 여성의 고용증대, 그리고 공·사간의 관계의 개선 등을 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도시들은 이 원칙들을 실현에 옮겨야 하며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도시화의 문제를 생각하면 서울의 경우 더욱 심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서울은 세계의 몇 안되는 인구 1,100만을 껴안고 있는 거대도시이면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고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후유증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금 문제를 새롭게 보며 새로운 각도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시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환경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시민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세미나로서 국내전문가들 외에 싱가포르,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전문가들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좁은 도시국가이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개발과 환경보전 문제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새로운 시도로 앞서가며 경험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심각한 공해의 피해를 극복한 사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일본에서 참가하신 강연자와 발제자들에게서 많은 제안들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의 성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과가 있을 것을 확신하며 축사를 가릅니다. 감사합니다.